

영양군 서부아파트 시멘트풀 유출사고 수습 논란

“우수로, 제 기능 상실... 태풍 피해 키워”

시멘트풀 유출량 약 3톤 추정
원형배수관 30% 막힘 현상 발생
“사고당사자·기관, 안일 대응”



시멘트풀이 굳어버림 사진

영양군서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멘트풀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복구가 미흡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한전 영양지사 맞은편 하천에 탁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관계자 및 하천감시원이 최초 유출지점을 확인한 결과, 영양군서부아파트 건설현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멘트풀 유출량은 약 3톤 정도로 추정된다. 군

담당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유출경위서를 징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폐사물고기를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소장은 유출된 시멘트풀이 우수로(지하배수관)에 쌓여 굳지 않도록 다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멘트풀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물의 흐름이 정제되는 곳에서 쌓인 채 굳어버려 우수로 일부를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원형배수관의 30% 내외가 시멘트풀이 굳어져 배수관 본래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렇게 막힌 우수로 때문에 태풍 때 피해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주민 A씨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이 지점에서 물이 넘쳐 인근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더 문제인 것은 이 지점에 나뭇가지 등 퇴적물이 쌓여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면 이 우수로 전 구간에서 물이 넘칠 수 있다”며 “특히 폭우나 태풍이 올 때 이 우수로는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우수로의 막힌 구간을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비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우수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고당사자나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해당 건설업체는 시멘트풀로 인하여 막힌 일부 우수로를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며 영양군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안동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 복상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을 개최하고 있다. /안동시

안동시 ‘하이선’ 대비 사전점검

안동시, 제10호 태풍 ‘하이선’ 복상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나서

‘마이삭’ 피해 철저히 복구, 풍수해 취약지 중심 신속 사전점검 조치

안동시는 오는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강풍, 폭우에 대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긴급 현장점검 및 사전조치에 나섰다.

제10호태풍 ‘하이선’은 5일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15hPa(헤кто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55m의 세력을 유지하며 북진하고 있으며 오는 7일 정오에 남해안 상륙이 예상된다.

안동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각종 시설물 파손, 사과 낙과, 수목 전도 등의 지역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여 4일과 5일 연이어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별 비상근무체제를 계획하고 각 부서별 관리 시설, 관내 취약지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조치에 나섰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경북도, ‘경북형 뉴딜 3+1’ 발표... 5년간 12.3兆 투입

디지털·그린산업 선도지역 도약
164개 과제·7.5만개 일자리 창출

경북도는 6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산업과 그린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기존에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산업분야의 성장 기반과 잠재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디지털·그린 산업 선도지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강화의 세 축과 더불어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3+1’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경북도는 2025년까지 총 164개 과제에 12조 3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과제 중 분야별 대표 과제 10개를 엄선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이와 더불어 경북형 스마트(G-Sm

art)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는 ▲D.N.A(Data-Network-AI) 융·복합 확산 ▲온라인·비대면 산업 육성 ▲주요 인프라의 디지털화 ▲디지털 교육·훈련 체계 마련 등 4대 분야, 85개 과제에 4조 2071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5G·AI 등 디지털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대면 산업의 발전과 농·축·수산, 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확산 ▲녹색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기반 마련 등 3대 분야, 46개 과제에 7조 3013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저탄소친환경의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녹색 생활환경 조성, 녹색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그린 모빌리티 등 미래 녹색산업의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안전망 강화에는 고용 안전망 강화와 기업혁신지원, 소상공인 기반 지원과 함께 고용시장·경제구조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35개 과제에 881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최종 선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경북형 뉴딜사업의 핵심 축이자,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역 경제를 일으킬 대한민국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신공항 건설에 9조 2700억원 ▲연계 SOC 구축 등에 13조 7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김포시, 경기도에너지진흥원 유치 첫발

1차 심사 통과, 22일 2차 심사

김포시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선정을 위한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4일 경기도청 환경정책과로부터 1차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공모에 응모한 10개 시·군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지자체는 김포시를 포함해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이다. 2차 심사는 오는 22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시·군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균형발전 노력도 ▲주변 인프라 및 환경 에너지 분야 자체 사업 ▲입주건물의 공간 확보 및 확장성과 접근성 ▲신설기관 유치 의지 및 환경·에너지 사업 협력도 등이다.

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최병갑 부시장이 지휘하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응모에 대비해 왔다.

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시 첨단산업단지 및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대곶지구 이스티(E-city)를 통한 전기차 특화 및 리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한강하구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등에서 다른 시군 대비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광주은행, 中企·소상공인 특별대출 지원

신규 3000억·만기연장 2000억

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과 만기연장자금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천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2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50%포인트를 우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강성태 기자 ksd1008@

경북도 UN 파트너시티 선정

경북도가 UN의 파트너시티로 선정됐다. UN은 2045년 UN 100주년 준비를 위해 미래방향 설정과 홍보를 함께 해 나갈 파트너 발굴을 위해 100만 이상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9월 4일 최종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UN 75주년 아젠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일의 Bonn, 한국의 경북, 전남, 부산 총 4개 도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UN은 파트너시티와 함께 글로벌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UN 파트너시티 선정으로 UN 75주년 설문조사 홍보, UN 75 글로벌비전을 수립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부산시 기후위기비상 선언식 개최

부산시가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7일 오후 시청에서 ‘기후위기비상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기후위기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인 시민들과 생활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짐하는 자리다.

선언식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구자상 기후위기 부산비상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소년 대표로 가장고등학교 2학년 전인수 학생이 참석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